



柳重根사장

- ▲발명인
- ▲중앙방수기업(주) 사장
- ▲국제발명전 10회 수상
- ▲대통령 표창 수상(85년)
- ▲동탑산업훈장 수상(87년)

항시 공부하는 자세

▲바쁘실텐데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선 사장님의 이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그저 평범한 기업인입니다. 때문에 항시 공부하는 자세(서울대 졸업후 경희대 경영행정 대학원 및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주요 발명품과 그 특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발명품은 합성셀·중앙 워터스톱·AG 코트 등 20여건입니다.

합성셀은 기존 아스팔트 방수의 결점을 개선한 방수제로서, 도막형 시공으로 이음부 처리 부주의에 따른 하자 발생을 완전 제거시켰습니다. 이 방수제는 특수합성고무와 합성수지를 특수 배합시켜 인장강도와 밀착성 및 신축을 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앙 워터스톱은, 종래 액체 방수제의 결점

나의 發明

“저역시 초창기에는 발명품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했던 점과, 이를 기업화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 방법의 무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발명은 일시에 이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실을 맺게되고, 완전한 발명이란 실용화가 뒤따라야 하지요.”

30여년을 방수제 발명·생산·건축시공의 외길을 걸어온 중앙방수기업(주) 柳重根사장은 우리나라 방수업계의 독보적인 인물로

인 피도장체와의 부착력이 약하고 균열이 빈번히 발생하던 것을 개선한 발명으로 고급 중합류 합성수지를 기재로 하고 고분자 화합물을 반응 생성시킨 방수제입니다. 모체 콘크리트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 부착력이 양호하고, 모체 깊숙이 침투하며, 경미한 균열에도 갈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G 코트는 합성고무를 기재로 하고 이에 특수 경화제를 첨가시켜 생성되는 것으로 도막형 시공 제품입니다. 공사기간 단축과 노동력 절감 등이 요구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최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지요. 제품의 물성 또한 강도와 신율에서 타 고무화 아스팔트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특히 신장이 기대되는 제품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의 발명품 방수제로 시공한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답변이 독자여러분들에게 자랑으로만 일관되는 인상을 주는것 같아 이 인터뷰가 망서려 집니다. 그러나 기자께서 물으시니 말씀을 드릴테니, 제가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기사화에 신중을 기해

나의 發明技法

손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87년 발명의 날 기념 전국 발명장려 대회에서는 방수업계에서는 최초로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무엇이 오늘의 중앙방수와 柳사장을 탄생 시켰는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7에 위치한 중앙방수기업(주)를 찾아, 柳重根사장과 자리를 같이하고 그의 발명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주십시오.(柳사장은 자신의 공적조차 자칫 자랑이 될까봐 대답을 망서리는 겸손한 중견 기업인이었다.)

저희 중앙방수가 그동안 시공한 주요 건물은 인천중앙길병원·상계백병원·연세의료원 심장센터·국립경찰병원·충북대 의대 부속 병원·한국감정원·상록회관·건설회관·대덕과학관·농협유통센터·한국종합무역센터·인터콘티넨탈호텔·국제특허연수원·올림픽기자 선수촌·올림픽 펜싱 체조 수영경기장·아시아 선수촌·금성사 중앙연구소·럭키금성공장의 다수입니다.

▲사장님의 발명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30여년전 발명시작

◎60년대의 초니까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그때 저는 제일교포 사촌형님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건설업이 유망하다는 권유를 받았고, 당시 동경올림픽으로 일본의 건설업이 호조인 것을 직접 목격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과 함께 국내 건설업 현장을 두루 살펴보고, 여러 건설 업종이 있지만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방수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 방수업계는 타업종에 비해 기술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제품의 질 또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방수제의 품질향상은 곧 기술개발을 통한 수명연장임을 절실히 깨닫고 본격적인 방수제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방수제 분야에만 전념하여 왔으며, 지금도 방수업계의 육성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속 연구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발명과정의 애로점은 무엇이었으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명인은 대개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좋은 기술성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도 종종 사장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초창기에는 발명품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했던 점과, 이를 기업화할 수 있는 마케팅활동 방법의 무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발명은 일시에 이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의 끝에 결실을 맺게되고, 완전한 발명이라 실용화되었을 때 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인내와 끈기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하고, 실용화와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발명이 어느 일정 단계까지 성장하여 기반을 구축할 때 까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사후 관리까지 포하된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정부 및 산하 전문기관에서는 대개의 발명인들이 절대적으로 영업 활동방법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들에 대한 영업방법의 교육 및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기업화 비결은 무엇이었는지요?

◎비결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지요. 저는 60년대초 사업의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방수 분야에 손을 대고 부터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방수제가 갖고 있는 결점과 보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우수한 제품

개발에 전재산을 들여 제품 발명에 전력 투구하여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우수한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명은 자체 및 공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국내외적으로 제품의 공신력과 우수성을 인정받는데 주력했으며, 이러한 공신력과 우수성을 곧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화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탑산업훈장 수상

▲사장님의 발명을 통한 수상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까? 물으시니 대답은 하겠지만, 부끄럽습니다.

저는 평범한 기업인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결코 상을 받으려고 발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보니 분에 넘치는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하여 대통령 표창·

柳重根사장 발명 30년

『방수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비가 새는 곳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알아내는 작업도 작업이러니와 우선 무엇보다도 좋은 방수제를 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온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신축성이 좋은 방수제를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니까요.』

방수제를 발명하여 생산도 하고 시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중앙방수기업(주) 柳重根사장의 설명.

방수제 전문메이커인 이 회사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손색이 없다. 지하철 2·3·4 호선 전 구간의 6분의 1도 이 회사가 맡았다.

'60년 3월에 창업한 이래 지금까지 이 회사가 직접 방수공사를 한곳만도 무려 1천건에 달한다. 국내 유명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면 안 끼인 곳이 없다.

중앙방수가 이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柳사장의 30년 세월의 피와 땀이 이루어낸 결정체이자 금자탑이다.

柳사장은 오늘의 결실을 위해 전재산과 황금기의 반평생을 서슴없이 바쳤다.

워낙 과묵하여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의 발명 30년은 이미 발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방수업계 의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70년대 초에 柳사장은 일본인 기술자 2명을 초청하여 합성질의 개발에 착수했으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데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인 기술자들은 4년쯤 지나 그냥 돌아가 버렸다. 실로 암담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같은 회사 기술자 3명과 함께 심기일전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柳사장에게 밀어닥친 이같은 역경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과학기술처장관상(70년)을 수상한 바 있으며, 뉴욕·서독·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도 10여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장님의 좌우명을 소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난 '발명 30년'을 회고하여 주십시오.

◎저는 큰 욕심은 없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좌우명으로 그저 모나지 않는 평범한 삶을 가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발명 30년'을 회고하라고 하셨는데, 기자께서는 저를 두세차례 취재한 적이 있으니, 직접 소개해 주시지요. 아마 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의 '발명 30년'은 이 기사 말미에 제가 소개하기로 하고,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한 발명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발명 그 자체는 출발 단계이고, 이러한 발명이 사장화되지 않고 실용화에 연결되었을 때, 그 발명은 성공한 발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공한 발명인은 발명이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발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것을 개선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연구와 생명력을 가진 발명으로 존속시키겠다는 책임의식이 강한 발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명기업인의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 인간제일주의·성실제일주의·신용제일주의·기술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방수기업(주)의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집에서까지 연구에 몰두하다 집까지 불태운 적도 있다.

60년대초 故 朴正熙대통령의 격려까지 받으며 마친 석굴암 보수공사는 1년후 「석굴암에 물이 샌다」는 여론으로 중앙방수로서는 첫사련이자 최대 시련기를 맞기도 했다. 조사결과 방수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이곳이 원래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밝혀져 누명을 벗기는 했으나, 柳사장이 받은 물질적 정신적 충격은 실로 컸다.

『정직과 성실 앞엔 불가능이 없지요.』

柳사장이 산너머 산처럼 밀려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정직과 성실이었다.

한국주택은행의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이은 중소기업은행의 우량기업 선정 그리고 일본의 유명메이커 大和高분자 회사와 기술 제휴 등 많은 국내외의 공인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제 중소기업의 차원을 떠나 중견기업으

로서 우뚝 솟아 대기업으로의 비상을 준비하는 중앙방수기업(주)와 柳重根사장.

여기에서 탄생된 옥동자인 합성셀·중앙 워터스톱·AG코트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우리 제품은 외국 제품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등히 우월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판매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에 공장을 지어, 직접 현지 생산을 하고 싶습니다.』

중앙방수는 규모는 적지만 이미 외국수출과 시공 경험도 쌓았다. 이에따라 국내 건축공사에 이어 외국 건축공사 단골 기업으로 부상할 날도 머지 않았다.

『일본 방문시 만약 사촌형님이 다른 사업을 권유했으면 아마 그걸 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柳사장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또 장학사업에도 한몫(대승장학회 이사및 화촌장학회 회장)을 다하고 있다.<王然中記>